

절과 함께 살아 가진 것 없어도 부자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13 정족산 전등사

길 위에서 보면 시간들 한가운데에는 어김없이 나무가 있다. 전등사에는 500년도 더 산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노송나무와 동송나무로 불리는 데, 전등사 은행나무는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거기에 얽힌 설화를 들어보자.

철종 임금 때 전등사는 조정으로부터 은행 20가마를 바치라는 전갈을 받았다. 한 해 은행 수확이 10가마인데, 두 배의 은행을 바치라는 것은 관청의 무리한 요구였다. 노스님은 관리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도력이 높은 백련사의 추송 스님을 부르기로 했다. 스님은 3월 기도에서 들어갔고 기도가 끝나는 날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던 관리들 눈이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통통 부어 오르기 시작했다. 기도를 끝낸 스님이 "더 이상 두 그루의 은행나무에서는 은행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머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보살이 전등사를 구하기 위해 스님으로 변해 왔다고 믿게 되었다. 이후로 전등사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 절집마다 설화들이 전해지지만, 살아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약 300세대 작지 않은 마을에 절 교회 성당 터 잡고 살아 강화 전통공예 사라질까 걱정 규제 많지만 생태 위해 '인내'

것은 나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사람들이 남기고 간 글귀보다 더 뉘그러고 깊은 이야기들이 나무의 물관 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강화도 전등사는 호국불교 근본도량으로 역사와 권위를 간직한 사찰이다. 1332년 고려 왕실은 몽골의 침략을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임시 도읍을 정하였다. 삼랑성 안에 자리 잡은 전등사는 경내에 가꿨을 지어 임금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조선 말기에 접어들면서 지형적인 특성으로 국난을 지키는 요충지 구실을 특별히 해냈다. 지금도 전등사 대웅전 내부 기둥과 벽화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낙서들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병인양요 당시 부처님의 가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병사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 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강화도는 해안요새 역할을 감당하느라 시련이 많았던 탓인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여러 가지 종교가 혼재해 있어 종교문화의 성지처럼 느껴졌다. 은수리라는 작은 마을에 전등사와 은수교회, 은수성공회성당이 터를 잡고 있다. 절집 야캠프마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었다. 동문 입구에 앉아 두릅을 파는 아주머니들을 만났다. 교회 권사이지만 전등사를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제철 나물들을 팔아 흥으로 쓴다고 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절집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등불 밝히는 일을 잊지 않는단다. 절집은 누구나 드나들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었다.

보리수를 한 모금 얻어먹으려고 공양간에 들렀다가 은수리에 사는 공양주 보살 장화차씨를 만났다. 비구니 스님들은 절집 부엌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보살은 그저 절집에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 자녀들은 다 출가시키고 소일거리를 찾던



전등사 경내

중 우연히 공양주 보살이 되었다. 부처님오신날 3군데 사찰을 돌며 등불 밝히는 것이 연례행사였는데 요즘은 바빠서 시주에 게으르다며 새벽 종소리처럼 맑은 웃음소리를 낸다. 어려서부터 절집으로 향하는 마음이 늘 즐거움이었다는 그녀는 건강이 따라 줄 때까지 공양간을 지키고 싶단다.

사람 마음의 도량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은수리라는 지명이 사람들 마음을 선하게 다스리는 것인지, 은 동네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탓인지 모두 마음 도량이 깊다. 박덕례 이장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절집까지 찾아 와 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을 부자로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라며 너털웃음을 웃는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바로 근심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법문이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지요. 어렸을 때 정족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부모님께 쌀을 사다드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때 가장 부러운 것은 삼당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배우고 나서 버리는 책을 갖다가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지요.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등사에 미군들이 관공러 많이 들렸어요. 소를 먹다 말고 미군들이 들어오면 말을 불이며 노트에 적어서 영어를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가난을 온몸으로 물리쳐려고 했던 이장님의 몸부림이 한편의 드라마 같다. 은수리라는 약 300세대가 어울려 살고 있는 작지 않은 마을이다. 그는 30대에 동네 이장을 보다가 성실성을 인정받아 면사무소의 기술직공무원이 되었다. 지금은 퇴직하고 산발방



종각 앞 고사목에 누가 달마상을 새겨 놓았다.

지오원으로 전등사 뒷산을 지키고 있다.

3년 전부터 은수리는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한 채 지어지고 약 80세대가 외지에서 이사를 들어왔다. 그는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강화도의 화문석이라고 했다.

시골아내들의 부업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전통공예가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옛날에는 강화 화문석 축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행사가 중단 되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도 손으로 짠 수박에 없는 것이 화문석이란단다.

은수리 사람들은 강화도의 풍경답게 소박하게 산다.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호박고구마라는 품종을 개발해 생산하고, 초지전에서 송어, 새우, 밴댕이를 잡기도 한다. 공장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다른 것으로 소득 얻기가 어렵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고향집에 들른 기분이 드는 강화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지만 바다 생태와 자연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산

화문석 아주머니 유길수



"짜기만 하면 팔려 나가...배우려 하는 사람 없어 걱정"

양도면 길정리에서 지금도 틈틈이 화문석을 짠 유길수 아주머니를 만났다. "시집을 와서 보니까 화문석을 짠 고장에서 시집은 사람들이 자리를 짜고 있었어요. 재미있어 보여서 이웃 동네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동네에 퍼져 화문석 짠 사람들이 많아 됐지요. 옛 것 배운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나 자리를 짰어 있었네요. 화문석 짠 것은 원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손이 많이 갑니다."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화문석을 짜지 못하기 때문에 농한기 때 부러워하는 사람

들도 있다. 규격은 10자 9자 8자로 구분하는데, 지금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서 수요가 예전보다 낮다고 했다. "옛날에는 내다 팔았는데 지금은 짜기만 하면 상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똑같은 물건도 솜씨가 좋으면 3~4만원 더 얹어 줍니다." 화문석을 짠다는 일은 고드림에 일일이 손으로 감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하기에 좋은 작업이었다. 농사지어서는 못 가르치는데 자녀 셋을 다 대학까지 보냈더니 화문석이 장학금이 되어 주었다

고 말했다. "농한기에 일주일이면 들어서 화문석 하나를 짜지만 무뎠고 아프고 하더라도 아이들 책가방이 없어지면 그만 두려 했는데 소일거리가 없어 심심풀이로 조금씩 짠다. 짠다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줄 요량으로 받고 싶고 열심히 했지요. 장날 나가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재미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일은 화문석을 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전통문화를 묵묵히 다듬어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성불화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 만트라 ㉸ 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던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산행, 개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 최고...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어 놓은 발로 끄덕거리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지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축문상(天軸輪相)과 만트라 ㉸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가 가격 98,000원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만트라 ㉸는 올마니 반매홍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서(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 올마니 반매홍 성불화는!
•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만트라/
• 신고 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용천과 아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 부처님 축상, 올마니반매홍 삽입
•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타이어트랙 밀링

일진 100만셋트 판매기념 글루코사민100 <노미진 특별기획> 판매

일진제약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의 구성성분으로 관절·연골에 영양을 공급하여 튼튼한 관절을 원하시는 분께 좋은 제품이다. 관절의 건강을 원하시는 분, 관절 연골에 영양공급이 필요한 분, 관절 및 연골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약자, 여성분에게 좋은 제품이다.



▶내용량 : 1통(570mg x 270캡슐)
총 14개월분 (글루코사민 6개월분 + 칼슘 8개월분)

글루코사민100 특별할인 198,000원 → 69,800원

제조원 일진제약(주) 주문상담 080-223-7000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잠!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숨을 자주 드시는 분이냐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다.



▶내용량 : 1박스(80cm x 60cm) 2개월분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숨,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옷 인타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산고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잘 갖춰야 참옷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식품은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인타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만, 난 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자들 없는 옷, 서울대 임상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걸스퀸 역이 되는 옷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생생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유 - 협찬

구입편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식품 제품보다 신화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효용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